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아키(秋)』론*

- 삼각관계와 갈등심리를 중심으로 -

감영희**
kamyol110@tu.ac.kr

<目次>

- | | |
|-------------------------|-------------|
| 1. 서론 | 4. 갈등심리 |
| 2. 작품의 배경 | 4.1 갈등의 요소 |
| 2.1 아키 | 4.2 순키치의 입장 |
| 2.2 개요 | 5. 결론 |
| 3.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노부코 상(像) | |

主題語: 아키(AKI), 노부코(Nobuko), 삼각관계(love triangle), 갈등(conflict), 질투(jalousy)

1. 서론

『아키』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 /이하, 아쿠타가와)의 단편소설로 작가가 최초로 시도한 근대 심리소설이다. 심리소설이란 인간내면 심리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묘사하는 소설로, 그러한 의미에서 사촌오빠 순키치(俊吉)를 사이에 두고 자매간의 삼각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의식적이고도 사고적인 특성에 의해 잘 묘사되고 있다.

『아키』는 사랑하는 남성을 여동생 데루코(照子)에게 양보한 언니 노부코(信子)의 시점을 축으로, 내면에 숨겨진 3자의 미묘한 갈등심리가 ‘고상한 정취’로 표현되고 있다. 필자가 ‘고상한 정취’라고 표현하는 것은, 세 사람 모두는 자신의 생각을 감춘 채 다만 눈앞의 현실을 수긍하는 조용한 시선, 그리고 갈등은 빚지만 결국은 받아들이고 살아가려는 주인공들의 회한(悔恨)적인 삶의 모습이, 아련한 가을정취 속에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표 당시 대체로 호의적 평가를 받았던 작품으로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한 특성으로 알려져 있는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잠재하는 애고이즘적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의 솔직한 특성이

* 본 논문은 2016학년도 동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됨.(과제번호/ 2016A047)

** 동명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유감없이 발휘된 단편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격적으로 작품의 내부적 고찰을 통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쇼와(昭和)에 들어와서이다. 1920년 잡지 『주오코론(中央公論)』 4월호에 게재되었다.¹⁾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자매간 갈등심리와 그 요소에 대해 검토·분석하고자 하며, 특히 ① 언니 노부코의 심리적 갈등을 통해 작가 아쿠타가와 의 노부코상(像)에 대해 검토한다. 나아가 ② 주인공 세 사람의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자매간의 질투 및 갈등 그리고 그 요소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의 인용 저본은 『현대일본문학대계(現代日本文学大系)』⁴³ 芥川龍之介集-秋(1968년)에 의한다.

2. 작품의 배경

2.1 『아키』

아쿠타가와 의 처음 예술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내한다는 예술지양주의를 표방했다. 진정한 인생의 추구는 예술창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여, 예술을 인생의 우위에 두었다. 예술의 가치는 예술 그 자체에 있다고 표명한 예술지양주의는 곧 자연주의와 대치하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자신이 목매달아 죽는 모습을 보고 사치스럽게도 미적 혐오감을 느꼈다”²⁾

“우리가 자신의 완성을 꾀할 수 있는 것은 예술을 통해서이며 또한 예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³⁾

“굳이 신앙을 구할 필요가 없다. -중략- 나는 예술이라는 이름의 신앙 아래 느끼는 법열(法悅)이, 다른 신앙이 주는 법열보다 뒤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⁴⁾

“예술 활동은 그 어떠한 천재라도 의식적인 것이다.”⁵⁾

1) 1921년 3월14일 신초샤(新潮社) 간행 『야래화(夜來の花)』에 수록

2) 1968년 「或旧友へ送る手記」(底本『現代日本文学大系43-芥川龍之介集』筑摩書房)

3) 1968년 『現代日本文学大系-芥川龍之介集』、p.110

4) 1968년 『現代日本文学大系-芥川龍之介集』、p.315

아쿠타가와와는 그의 문학 활동 중기⁶⁾에 들면서 자신의 문학에 대한 삶의 영상과 흡사한 예술가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일련의 작품들을 발표했다. 이른바 예술에 의해 자연주의를 지양하려는 예술지상주의적 입장에서 『지고쿠현(地獄変)⁷⁾』 『호쿄닌노시(奉公人の死)⁸⁾』 『게사쿠산마이(戯作三昧)⁹⁾』 등을 저술하였다. 그는 자연주의 작가들이 고집하는 현실적 삶 자체는 ‘인생의 잔재’라는 사고 아래,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생추구는 예술창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예술관을 구현하였지만, 1919년 일찍이 아쿠타가와 자신이

‘예술의 완성을 향해 매진하려 할 때 뭔가 우리들의 정진을 방해하는 것’¹⁰⁾

에 대한 끌림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작품의 중량감과 인생의 추구라는 양자택일 속에서 그 선택결과를 쉽게 얻지는 못했던 것 같다¹¹⁾. 마침내 비슷한 작품을 계속 써내려가는 동안 무리하게 쏟아 부은 창작열의를 통해 스스로의 적막감을 달래려던 아쿠타가와와는 스스로의 작품에 정체(停滯)를 느끼고 현대소설로 전환을 꾀하게 된다.¹²⁾ 아쿠타가와와는,

“예술가가 퇴보할 때 언제나 일종의 자동작용이 시작된다.”¹³⁾

는 인식 아래, 역사적인 제재로부터 자신의 경우를 대상화(對象化)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실이나 일상성을 대상화하는 현대소설로의 전환을 시도하게 되는데¹⁴⁾, 『아키』는 그러한 최초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아쿠타가와와는 경향전환에 있어서, 작품을 공개하기 전 난부 슈타로(南部修太郎)¹⁵⁾에게 불안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작품발표 후 호평을 얻자,

5) 1968년 『現代日本文学大系-芥川龍之介集』, p.265

6) 1917년 말부터 약 7년간으로 봄.

7) 1918년 5월 작품. 『유지슈이모노가타리(宇治拾遺物語/うじしゅういものがたり)』에 등장하는 화가를 모델로 한 소설. 자신의 작품을 위해 딸이 불타 죽는 것을 지켜보는 예술에 대한 화가의 고뇌를 그림.

8) 1918년 9월 작품. 젊은 미소년 로렌조의 한순간의 순교적 행위와 스스로 목숨을 끊고서도 미소를 짓는다는 이야기

9) 1917년 작품. 에도시대 실존인물 소설가 다키자와 바킨(滝沢馬琴)을 모델로 한 소설. 예술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소설을 써내려간 작가의 이야기를 그림

10) 芥川龍之介(1910) 『芸術とその他』

11) 네이버 -일본소설 명인명상 감상/아쿠타가와 류노스케- p.8

12) 三好行雄(1968) 『作品解説』 『杜子春・南京の基督』 角川文庫(개정판 1977년), p.78

13) 芥川龍之介(1919) 『芸術その他』 『新潮』 11월호

14) 三好行雄(1968) 전게서, p.76

15) 난부슈타로(1892년-1936년): 일본소설가. 아쿠타가와와는 스승으로 섬김. 고지마마사지로(小島政二郎), 사사키모사쿠(佐佐木茂索)와 더불어 용문사천왕(龍門 四天王)으로 불림.

“실제 나는 하나의 난관을 통과했다. 앞으로는 깨달음 뒤의 수행이다.”¹⁶⁾

라고, 스스로의 작품에 대한 안도감과 자신감을 드러내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 다키이 코사쿠(滝井孝作)¹⁷⁾에게도

“‘아키’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안심하기보다 운이 좋았던 것 같다. 나는 점점 저와 같은 경향의 소설을 쓰게 될 것 같다”¹⁸⁾

는 글을 남기고 있다.

또한 작품 『아키』에 대해서는 첫사랑 요시다 야요이(吉田弥生:1892년-1973년)와의 경험을 지적하기도 하는데, 1914년 5년 이후 약 4여년에 걸친 야요이와의 교제과국이 ‘작품에 일단의 모티브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고찰이 그것이다.¹⁹⁾

야요이는 당시로서는 신학문을 배운 신여성 그룹이었다. 아오야마여학원(青山女学院) 영문과를 졸업한 매우 총명한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적자소생이 아니었다고 한다. 두 집안의 인연으로 일찍부터 야요이를 알고 지냈으며 아쿠타가와가 그녀를 가끔 방문하기 시작한 것은 1914년(大正3)5월경으로 그 무렵 야요이에게 보낸 편지도 남아있다. 두 사람의 혼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야요이에의 사랑도 급속히 깊어져 구혼을 결심하게 된다. 하지만 아쿠타가와 집안의 맹렬한 반대로 단념하게 된다. 1915년 이른 봄의 일로, 반대이유는 야요이가 적출소생이 아니라는 점, 야요이가 아쿠타가와와 같은 나이라는 점, 야요이가 이미 다른 사람과 혼담이 오가고 있었던 점 등을 들고 있다.

집안의 반대로 그녀와의 결혼(연애)이 실패로 끝나면서, 아쿠타가와와는 인간성 이면에 숨어 있는 관습을 내세운 이기심과 추악함과 마주하게 된다. 가족과 나아가 자신의 이기심마저도 목격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으로서, 사랑의 자기 판단에 타인의 지성을 무시하고 음미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가족들의 자기중심적이고 윤리적 의미가 강한 에고이즘(egoism)적 문제를 핵심으로, 그 후 아쿠타가와와의 인간인식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검토된다.

이러한 야요이와의 연애경험은 아쿠타가와 문학형성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은 것으로 추론된다.

16) 芥川龍之介(1920)「南部修太郎への書簡」(大正9년 4월13일자)

17) 다키리 코사쿠(1894년-1984년) :소설가, 하이쿠(俳句)가인. 아쿠타가와 시가나오야(志賀直哉)로부터 소설에 대해 배움.

18) 芥川龍之介(1920)「滝井孝作への書簡」(大正9년 4월9일)

19) 小澤保博(2006)「芥川龍之介『秋』を読む」琉球大学教育学部紀要

2.2 개요

주인공 노부코는 재원의 여대생으로 작가를 지망한 재원이다. 사촌오라비 순키치를 좋아했지만 여동생 데루코가 보낸 연서를 읽게 되면서 데루코에게 양보, 학교를 졸업 후 오사카 주재 무역회사에 취업한 후, 다른 상대와 결혼한다.

순키치는 노부코의 사촌오빠이다. 대학 문과에 진학하여 작가를 지망하여 동인잡지를 통해 활동하였다. 프랑스식의 야유적인 풍자를 즐기는 냉소적 태도도 취하지만, 언제나 진지한 노부코와는 대조적으로 농담도 잘 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주위사람들은 노부코와 뜻이 잘 맞아 장래 두 사람이 결혼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데루코는 노부코의 여동생으로 순키치를 좋아한다는 연애편지를 보낸다. 그것을 알아챈 노부코는 자신이 물러난다. 노부코의 남편은 상고출신의 청년으로 오사카에 거주한다. 말수가 적고 품위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가계와 경제(돈)에만 관심이 있는 인색한 남자이다.

노부코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왔고 자신처럼 소설가를 지망하는 사촌 순키치와 대학시절부터 가까이 지내면서 주변에서는 두 사람이 장래 결혼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졸업 후 노부코는 예상과는 달리, 사촌 순키치에 대한 동생 데루코의 연민을 알게 되자 자신은 오사카 주재의 무역회사에 취업, 다른 상대와 결혼하고 만다. 동생 데루코는 언니 노부코에 대해 미안한 감정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순키치와 부부가 되어 행복했다. 데루코는 언니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 것은 자신이 순키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언니 노부코가 순키치와의 사랑을 양보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노부코는 다음 해 가을 어느 날, 부부의 신혼집을 방문한다. 집에는 순키치만이 있었다. 데루코와 하녀가 귀가하기 전까지 노부코는 가슴에 맺힌 미련의 감정을 숨긴 채 순키치와 즐거운 듯 소설이나 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데루코가 귀가하여 자매는 오랜만에 감격의 대면을 한다. 저녁식사 후 달빛이 비치는 정원을 순키치와 노부코가 함께 산책하는 동안, 데루코는 홀로 남편의 책상 앞에 켜진 흐릿한 전등을 바라보고 있다.

데루코는 언니와 남편이 아직도 서로에게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다는 사실 앞에 끓어오르는 질투를 느끼며, 노부코는 데루코와 순키치와의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 앞에 잔혹하게도 기쁨을 느낀다. 노부코는 집을 나서며 여동생과는 이제 영원히 타인이 된 듯 쓸쓸한 체념과 함께, 차가운 가을하늘 아래 온 몸으로 외로움을 느낀다.

3. 아쿠타가와와 노부코 상(像)

주인공 노부코 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 가능하다. 하나는 긍정적 측면이며, 또 하나는 비판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그것이다. 먼저 긍정적 측면에서 노부코 상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노부코가 동생 데루코의 집을 방문하여 애인이었던 순키치를 만난 그날 밤, 두 사람은 과거와 같이 달밤의 산책을 하게 된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 두 사람의 연심(戀心)은 자연스럽게 되살아나게 된다. 노부코는 다음날 마차를 타고가면서 우연히 순키치를 보게 되지만 마차를 세우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버린다. 여기서 운명을 따르고 자신의 못다한 회한(悔恨)의 정을 접는 노부코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한 행동에는 애수마저도 서려 있다. 즉 노부코는 당시 시대가 요구했던 일본적인 여자다움을 위해 동생에게 자신의 사랑을 양보하고 원치 않는 결혼을 선택하였지만, 그 회한(悔恨)은 언제까지나 마음깊이 내재하고 있었던 것인데,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그것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여성이었다.

한편 동생 데루코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언니의 순키치에 대한 감정을 알게 되자 불안함에 울음을 터뜨린다. 하지만 여기서 노부코는 동생을 위로하면서도 희열을 느끼는 여성이다. 그것은 데루코의 그와 같은 행동은, 곧 노부코와 순키치의 연애감정을 인정함으로써 나오는 행동임을 노부코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자매는 서로 간에 질투의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노부코도 언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여성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드라마적 발단은 노부코가 동생에게 애인 순키치를 양보하고 문학적 재능을 희생하여가면서 평범한 남자와 결혼했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문장을 읽어보면, 사실 작가 아쿠타가와와 노부코와 순키치 두 사람의 연애사실을 사실로서 한 번도 확실하게 단언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순키치와 노부코의 사랑은 친구들의 눈에 의해 비춰질 뿐이며 소문으로만 알려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노부코의 자기희생을 확실시키고 있는 대목은 데루코가 노부코에게 보낸 편지뿐이다. 아쿠타가와와 노부코상은 거기에 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노부코의 언동에서는 강한 자존심과 주도권을 쥐고자하는 성격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데루코에게 순키치를 양보한 것은 자신이 동생보다는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는 생각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그렇다고 할 때 어쩌면 ‘노부코는 순키치에의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마저도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검토는 차기를 기하고자 한다.

노부코는 여류작가를 지망하고 여자대학에 다닐 때부터 이미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당시로서는 ‘신여성’ 그룹에 속하는 여성이다. 그렇지만 그런 신여성이라 해도 대학을 졸업하면

창작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선 세상의 관습대로 혼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여성이라는 점과, 비록 신여성이라고는 해도 ‘세상 관습’과는 결코 동떨어질 수 없는 여전히 일반 사회체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입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비판적 시점에 의한 노부코상에 대해 분석해 보자.

노부코는 자신의 결단에 대해 은밀하게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다. 남편이나 남편의 동료인 오사카 사람들이 여기저기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를 깔보면서, 자못 자신은 인텔리라는 노부코의 심리에 대해 아쿠타가와는 객관적으로 그리지 않고 있다. 객관적으로 그리려는 노력은 엿보이지만, 결코 아쿠타가와와 정신은 노부코의 정신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부코는 비판적으로 묘사되지 않고 끝까지 내면을 숨기는 음침함을 지닌 다만 심리적 인물로서 감상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아쿠타가와가 노부코가 선택한 결혼을 실패한 것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노부코의 남편이 문학을 모르는 구두쇠라는 점과 변변찮은 남자로 묘사되어짐으로써 알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노부코의 남편은 노부코에게 크게 바라는 바 없이 열심히 가정경제에만 신경쓰기를 바라는 가정적인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순키치 역시 야유적인 풍자와 농담도 즐기는 태도를 취하지만 가정생활과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남편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럼에도 두 여성은 모두 불행한 가정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의 작품이었다면 어떠했을까. 일은 안하고 가정도 돌보지 않는 비가정적인 남자로 묘사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상대 여성들의 불행이 남득되도록 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차이가 곧 아쿠타가와 자신의 삶의 영상이, 문학에 투영된 주인공들과 흡사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부코는 순키치를 데루코에게 양보함으로써 동생에게서 우위를 느끼고 맛보면서 소설로 성공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원인을 동생에게 전가하고 있는 듯하다. 노부코의 행위는 언뜻 보기에 자기희생을 통해 여동생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비극적인 여성을 연기하지만, 어쩌면 냉혹한 만족을 음침하게 간직함으로써 도리어 여동생을 희생시킨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비록 데루코가 순키치와의 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행복을 찾을 만도 하지만, 노부코와 다름없이 가정생활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메마른 감정 속에 살아가는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부코의 마음속에는

“여동생 때문에 순키치를 포기하고 버린 나…. 아아, 나라는 사람은”²⁰⁾

20) “妹のために俊吉を諦めてしまった私…。ああ、私って”

라는 부분이 말해주듯이, 말하자면 노부코 자신은 비극의 여주인공 같은 감정이었겠지만, 정작 이와 비슷한 감정을 순키치도 데루코도 품고 있었다는 것은 이 작품의 핵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소결론적으로 아쿠타가와와 노부코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아쿠타가와와 노부코의 냉혹한 심리를 암시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사실 노부코의 심리를 분명히 드러나게 함으로써 노부코가 자신의 정신세계를 극복하고 틀을 깨고나오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아쿠타가와가 바라본 당시 신학문을 배운 여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거기에는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총명한 신여성이었던 첫사랑 야요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아쿠타가와와 시대인식과 여성인식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즉 선행연구²¹⁾에서 지적되고 있는 야요이와의 결혼 실패가 끼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4. 갈등심리

데루코에게는 노부코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질투의 정이 뿌리박혀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²²⁾ 또한 “자매의 이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갈등이야말로 사실은 이 작품 내면 드라마의 중심²³⁾”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것은 데루코가 순키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었다고 해도 그녀의 그러한 기분을 근본적으로 움직인 것은, 언니에 대한 질투의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방향 때문이다.

동반자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동료에서 배제되면서 언제나 위선적으로 언니를 생각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데루코는, 노부코에 대해

‘억제할 수 없는’²⁴⁾ ‘타오르는 듯한 불평’²⁵⁾

이 근저에 잠재해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데루코의 질투의 감정은 노부코와 순키치의 지난

21) 小澤保博(2006)「芥川龍之介『秋』を読む」琉球大学教育学部紀要

22) 山崎甲一(1999)「『秋』彼ら3人の内面の劇」(『芥川龍之介の言語空間』)笠間書院, p.144

23) 상계서, p.115

“姉妹のこの表立たない、隠微な葛藤こそ、実はこの作品の内面の劇(ドラマ)の中心”

24) ‘抑えきれない’

25) ‘燃えるような不平’

밤 산책이 있기 전부터 세 사람 중에서 데루코만이

‘이야기의 권역 밖으로 내버려졌던’²⁶⁾

때부터 싹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그럼, 언니는 왜 언니는 왜 어젯밤도.”²⁷⁾

라고 하였듯이 ‘~도’라는 조사는 질투의 감정적 요인이 어젯밤만의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웅덩이에 고인 물처럼 고이고 고여 온 질투의 감정이 지난밤 일을 계기로 분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노부코의 질투의 감정도 이전부터 싹트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노부코는 사랑의 감정을 느꼈던 순키치에게 데루코가 보낸 편지(러브레터)를 읽는 순간을 살펴보면, 순키치에게 도착하기 전 편지는 분실되고 없다. 즉 노부코가 분실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 노부코는

“당분간 제 쪽에서는 사람이 없는 관계로 결혼식에는 본의 아니게 참석하기 어려우며...”²⁸⁾

라는 내용의 편지를 모친과 동생에게 보내어 순키치와 데루코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점에서 노부코의 동생에 대한 질투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두 사람의 갈등은 데루코가 순키치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어떤지 불안함을 보이는데 있다. 노부코가 데루코의 신혼집을 방문하고 순키치와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 가운데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의외의 기색을 보았다. 순키치가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이 같은 의심은 생기지 않을 것인데”²⁹⁾

이것은 곧 부부의 사이가 불안하기 때문에 데루코는 노부코에게 질투를 기색을 보인 것이라고 본다. 노부코가 순키치에게

26) ‘話の圏外へ置き去りにされ’

27) “じゃ御姉様は-御姉様は何故昨夜も-”

28) “何分当方は無人故、式には不本意ながら参りかね候えども...”

29) “意外らしい気色を見せた。俊吉から愛され信頼していれば、このような疑念は生じないであろう”

“순이 데루코를 사랑해 준다면”³⁰⁾

라는 언동이나, 데루코와의 결혼납폐(納幣) 전, 잡지에 게재된 순키치의 소설이

‘지금까지 사촌에게서 볼 수 없었던 슬픈 듯 자포자기의 상태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³¹⁾

라는 표현, 그리고 순키치가

‘건너 편을 바라본 채’³²⁾

마주보지 않는 자세로 데루코와 대화를 나눈다든지, 순키치가 데루코가 아닌

‘여자 하인의 손을 통해 몇 장의 엽서를 수취’³³⁾

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순키치와 데루코 부부사이가 원만한 사이는 아닌 것 같으며, 데루코가 순키치로부터 사랑받고 있지 않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즉 순키치와의 결혼을 양보해 준 노부코 앞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불안감이 데루코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데루코는 남편의 사랑에 대한 확신 없이 불안한 가운데, “순이 데루코를 사랑해 준다면”이라는 노부코의 한마디는, 데루코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결과를 가져 온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데루코가 없이 두 사람만의 산책 시간을 가진 후 노부코로부터 들은 말이었기 때문에, 데루코는 불안을 넘어 질투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4.1 갈등요소

첫째, 노부코의 한마디 “데루코는 행복하지(照子さんは幸福ね)”라는 말을 통해 순키치를 둘러싼 자매의 정신적 균열은 드러난다.

“언니도 행복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네.”

30) “俊さんが照さんを愛してくれれば”

31) ‘何か今までの従兄にはない、寂しそうな捨鉢の調子が潜んでいるように思われた’

32) ‘向うを向いたなり’

33) ‘女中の手から、何枚かの端書を受取’

“그래도, 형부는 자상하시지 않아?”³⁴⁾

라는 데루코의 말에 노부코의 뇌리에는 남편이 “소설만 쓰고 있으면 곤란해”³⁵⁾라는 이유로 창작을 단념했을 때의 기억이 스쳐지나갔다. 그 때, 남편은 석간에 기재된 식량문제와 그리고 매달 경비절감에 대해 집요하게 끈덕진 목소리로 뉘달하고 있었다. “그래도, 형부는 자상하시지 않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노부코가 바라보던 신문에도 쌀값문제가 게재되고 있었으므로, 아마도 남편에게 책망을 들었던 때의 기억이 겹쳐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황폐한 뜰(荒れた庭)’은 데루코와 순키치 두 사람의 생활과 가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노부코가 신혼집을 방문한 날 밤,

“잠깐 나가 봐, 달빛이 좋은데”³⁶⁾

라는 순키치에 의해 ‘가꾸지 않은 정원’에 나간 것은 노부코만이며, 두 사람만의 시간이 경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세 번째, 두 사람의 갈등은 데루코가 순키치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어떤지 불안함을 보이는데 있다. 노부코가 데루코의 신혼집을 방문하고 순키치와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 가운데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의외의 기색을 보았다. 순키치가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이 같은 의심은 생기지 않을 것인데”³⁷⁾

이것은 곧 부부의 사이가 불안하기 때문에, 데루코가 노부코에게 질투의 기색을 보인 것이라고 본다.

또 데루코와의 결혼 납폐(納幣) 전, 잡지에 게재된 순키치의 소설이 ‘지금까지 사촌에게서 볼 수 없었던 슬픈 듯, 자포자기 상태를 감추고 있는 듯 느꼈다.’라는 표현, 그리고 순키치가 ‘건너 편을 바라본 채’ 마주보지 않는 자세로 데루코와 대화를 나눈다든지, 순키치가 데루코가 아닌 ‘여자 하인의 손을 통해 몇 장의 엽서를 받아드는’ 행동, 또 ‘남편에게는 일부러 인척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³⁸⁾ 등의 행동을 통해, 순키치와 데루코 부부사이와 원만한 사이는

34) “御姉様だって幸福の癖に”

“そう思って?そう思われるだけでも幸福ね”

“でもお兄様は御易しくはなくて?”

35) “小説ばかり書いていちゃ困る”

36) “ちょいと出てご覧。好い月だから”

37) “意外らしい気色を見せた。俊吉から愛され信頼していれば、このような疑念は生じないであろう”

아닌 것을 암시하고 있어, 데루코가 순키치로부터 사랑받고 있지 않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설정이 갈등을 조작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4.2 순키치의 입장

순키치와 노부코가 황폐한 뜰을 거닐다 내려와 자고 있는 닭을 보고, 노부코는 자신을

‘계란을 사람에게 뺏긴 닭’³⁹⁾

이라고 생각한다. 순키치를 계란에, 타인을 데루코에게, 알을 빼앗긴 가엾은 자신을 닭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정에서 순키치는 계란으로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그것은 자매간 삼각관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순키치는

“인간의 생활은 약탈이군, 작게는 이 계란처럼”⁴⁰⁾

라는 말을 자매에게 던지고 있다. 이 순키치의 말은 자신과의 결혼을 두고 자매간의 심리적 암투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소박한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즉 순키치는 자신이 계란에 비유하면서 자매사이에서 약탈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납득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여기에 있는 세 사람 중에 가장 계란에 애착이 있는 것은 순키치 자신임에 틀림없다”⁴¹⁾

라는 기술을 통해, 계란은 즉 자신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5. 결 론

우선 아쿠타가와와 노부코상에 대해 정리해 보자.

노부코는 당시 시대가 요구했던 일본적인 여자다움을 위해 동생에게 자신의 사랑을 양보하

38) ‘夫にはわざとらしく、何とも返事をしなかった’

39) “卵を人に取られた鶏”

40) “人間の生活は掠奪で持っているんだね。小はこの玉子から—”

41) “此処にいる三人の中で、一番玉子に愛着のあるのは俊吉自身に違いな”

고 원치 않는 결혼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회한(悔恨)은 마음깊이 내재할 뿐이며 결국 자신은 현실에 안주하며, 회한에의 미련을 접어버리는 여성이다.

동시에 노부코는 동생을 위로하면서도 회열을 느끼는 여성이다. 두 자매의 질투의 감정을 통해 노부코도 언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부코는 여류작가를 지망하고 여자대학에 다닌 ‘신여성’이었다. 하지만 신여성이라 해도 세상의 관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순키치를 데루코에게 양보한 노부코의 행위’를 통해 언뜻 보기에 노부코는 자기희생을 통해 여동생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비극적인 여성이다. 하지만, 어쩌면 도리어 여동생을 희생시킨 인물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결국 노부코는 작가 아쿠타가와에 의해, ‘비판적 묘사가 없는 끝까지 내면을 숨기는 다소 음침함을 지닌 심리적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즉 아쿠타가와와 노부코는 심리에 대한 암시적 묘사만 있을 뿐,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아쿠타가와가 바라본 당시 신학문을 배운 여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거기에는 아쿠타가와와 첫사랑이자 신여성 이었던 야요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인식과 여성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검토된다.

다음으로 삼각관계를 둘러싼 질투의 심리와 그 요소에 대해 정리해 보면,

순키치를 둘러싼 자매간의 갈등과 질투는 두 자매의 결혼 훨씬 이전부터 싹트고 있었던 감정으로, 자매의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진 갈등이야말로 작품 『아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들은 각인각색의 방식으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마주 대하는 것을 계속 피하고 있으며, 또한 서로 자극적인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완곡한 표현을 통해, 그들에게 있어 삼각관계는 누가 피해자이며 누가 가해자인지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 삼각관계를 의식한 세 사람은 각자 거리를 유지하는데, 결국 그것은 각자의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요지부동의 현실이, 세 사람 앞에 놓여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의 질투의 정에 착목한 『아키』를 읽어 가면 자매의 행동이 얼마나 질투에 의해 빚어진 작품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參考文獻】

- 芥川龍之介(1920)「滝井孝作への書簡」(大正9년 4월9일자)
_____(1920)「南部修太郎への書簡」(大正9년 4월13일자)
_____(1921)『夜来の花』新潮社(3월14일자)
_____(1968)「或旧友へ送る手記」底本『現代日本文学大系43 芥川龍之介集』筑摩書房
_____(1996)「芸術とその他(1910)」底本「芥川龍之介全集 第五卷」岩波書店
_____(2011)『秋』(新潮文庫『戯作三昧・一塊の土』所収) 新潮社
小沢保博(2006)「芥川竜之介『秋』を読む」琉球大学教育学部紀要、p.103
山崎甲一(1999)「『秋』彼ら3人の内面の劇」(『芥川竜之介の言語空間』)笠間書院、p.76、p.78
네이버 -일본소설 명인명상 감상/아쿠타가와 류우노스케, p.8(검색일 2017.05.08)
네이버 -일본소설 명인명작 감상/ 아쿠타가와류우노스케, p.1(검색일 2017.05.08)

논문투고일 : 2017년 06월 30일
심사개시일 : 2017년 07월 17일
1차 수정일 : 2017년 08월 02일
2차 수정일 : 2017년 08월 0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08월 17일

<要旨>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아키(秋)』론

- 삼각관계와 갈등심리를 중심으로 -

김영희

본 연구는 아쿠타가와 최초의 근대적 심리소설 『아키』에 등장한 세 사람의 주인공을 둘러싼 갈등심리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그에 다가가기 위한 전제로서 언니 노부코를 통해 묘사되어진 작가 아쿠타가와와 노부코상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우선 아쿠타가와와 노부코를 비판적 인물로 묘사하지 않았다. 끝까지 내면 속에 음침함을 지닌 심리적 인물로 그리고 있다. 즉 노부코는 내면심리와는 반대로 결국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여성이다. 이러한 아쿠타가와와 노부코상은 아쿠타가와가 바라본 당시 신학문을 배운 신여성들의 모습이라고 추론된다. 다음 삼각관계를 둘러싼 질투 심리와 그 요소에 대해 정리하면, 먼저 순키치를 둘러싼 자매간의 갈등과 질투는 두 자매의 결혼 훨씬 이전부터 싹트고 있었던 감정으로서는, 자매의 감추어진 갈등이 그야말로 작품 『아키』의 중심 주제라고 생각된다. 세 사람은 각인각색의 방식으로 자신의 솔직한 심정과 마주 대하는 것을 계속 피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 자극적인 말은 피하면서 완곡한 표현을 통해, 그들에게 있어 삼각관계의 피해자는 누구이며 가해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리지 않는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삼각관계를 의식한 세 사람은 각자 거리를 유지하는데, 결국 그것은 각자의 입장을 벗어날 수 없는 요지부동의 현실이 세 사람 앞에 놓여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의 질투의 정에 착목한 『아키』를 읽어 가면 자매의 행동이 얼마나 질투에 의해 빚어진 작품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Akutagawaryunosuke's Theory of AKI

- focusing on the triangle relationship and mental conflict -

Kam, Young-Hee

In this article, I attempted to analyze the mental conflicts of three main characters in the “AKI”, the first post modern psychological novel of Akutagawa. As a prerequisite for the analysis, I studied the Nobuko's image of author Akutagawa which is described by the elder sister Nobuko.

First, Akutagawa did not describe Nobuko as a critical person. Rather, he described her as a psychological person with dark inner-mind. This image of Nobuko infers the view of Akutagawa toward modern women with education.

Next, the jealous psychology and factors surrounding triangle relationship are summarized. The emotional conflict and jealousy among two sisters toward Shunkichi had been sprouted long before the marriage. This hidden conflict of sisters is indeed the main subject of “AKI”.

Three people continuously avoid to face their candid emotions in various ways. They use soft expressions, not aggressive words, and do not elucidate who the assailants and the victims are in this triangle relationship. It is not clear who has what kinds of discontent against whom. They keep their distance thinking about the triangle relationship because of the reality, and there was no way to escape from their current situation which was laid in front of them.

However, when we read “AKI” with the jealousy of sisters in mind, we know that the actions of sisters were rooted based on their jealousy.